



## 한국후지제록스, 출판사·인쇄사 상생 위한 제작 Talk 개최 국내 출판시장 동향 · 글로벌 인쇄시장 흐름 소개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우에노 야스아키, www.fujixerox.co.kr)는 지난 9월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한국후지제록스 본사 소름에서 '출판사와 인쇄사의 상생을 위한 제작 talk'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맞춤형 책이나 포토앨범과 같은 개인출판 및 POD가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출판과 디지털인쇄산업의 시너지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영국 시장조사업체 스미서스 피라는 향후 10년 내 디지털출력량이 68%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케슬론앤컴퍼니는 디지털장비를 통한 컬러출력량이 2021년까지 연평균 24% 가량 성장할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출판과 인쇄 특히 디지털인쇄와의 상호작용을 견고히 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한 후지제록스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출판업에 종사하고 있는 투데이북스 이기우 대표를 초청해 출판업계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제작현장 팁을 전달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후지제록스 전략사업본부 PSB 마케팅팀 전윤 대리가 글로벌 인쇄시장 트렌드를 소개하고 출판업에 적합한 컬러디지털인쇄기를 추천했다.

### 이기우 대표 “소량 도서 제작은 POD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4년 출판산업 실태조사(2013년 기준)에 따르면 학습지(36.4%, 매출액 1조5723억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교과서 및 학습참고서

(22.5%, 매출액 9706억원), 일반 단행본(19.0%, 매출액 8199억원), 전집(13.5%, 매출액 5823억원), 학술·전문서(5.2%, 매출액 2237억원), 아동도서(3.5%, 매출액 151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평균 2.8%, 종사자수는 평균 3.6%가 감소하는 등 출판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출판시장의 동향을 설명한 이시우 투데이북스 대표는 “예전에는 1도나 2도의 초판 작업은 3천부, 2도나 4도의 초판 작업은 4천부를 제작했다. 재판시에는 1천부나 2천부를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2015년 현재 초판 및 재판부수는 예전의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1도나 2도의 초판 작업은 1천부, 2도나 4도의 초판 작업은 2천부를 제작하고 있다. 재판 역시 500부부터 시작해 700부, 아주 많이 작업해야 1천부를 인쇄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400부에서 500부 정도만 인쇄해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는 신간이나 300부 미만의 재판, 절판시킬 수 없는 도서의 소량 제작은 디지털인쇄 기반의 주문형출판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했다. 디지

털인쇄는 하루 만에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판사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인 납기일을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최근 책 관련 출판물 분야 중 학습지 시장이 36.4%, 교과서 및 학습참고서 시장이 22.5%로 전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디지털인쇄 적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향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인포트렌드는 향후 단납기 인쇄 작업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오는 2017년에는 책자인쇄가 현재 디지털인쇄가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DM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 디지털인쇄, 맞춤형 생산에 가장 효과적

2015년 인쇄산업의 주요시장을 트렌드와 함께 분석한 전을 대리는 인쇄시장에서 디지털인쇄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로 고 생산성과 고부가가치의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인쇄는 대량의 출력물을 찍어내는 것보다 한 장을 찍어내더라도 그 한 장의 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생산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인쇄의 장점으로 인쇄 준비 절차가 복잡한 오프셋 인쇄에 비해 자동화된 워크플로 지원, 인쇄 시 활용된 디자인을 SNS, 문자, 이메일, 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한 채널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이외에도 출판업계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인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인쇄방법’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오프셋인쇄로 책을 인쇄할 경우 실제 인쇄 및 후가공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은 극히 작고, 대부분이 전처리, 보관, 유통 및 재고 관리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디지털인쇄라인 구축을 통해 필요수량 주문제작에 따른 재고축소 및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을 대리는 “출력물의 특징에 따라서 인쇄 방법과 기계를 선택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잡지와 같이 고화질을 요구하



고객초청세미나 현장

는 분야가 있는 반면 출력품질보다 맞춤형 정보제공에 중점을 둔 DM, 학습지, 매뉴얼, 사보와 같은 대량 인쇄물의 경우 디지털 잉크젯 연속지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 잉크젯 컬러 연속지 프린팅 시스템

디지털 잉크젯 연속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제품으로 한국후지제록스 디지털인쇄기 ‘1400 잉크젯 컬러 연속지 프린팅 시스템’이 있다. 이 제품은 많은 수량의 잉크젯 헤드를 배열해 분당 100m(A4 양면인쇄시 분당 1314장)의 빠른 속도로 양면 풀 컬러 출력이 가능하다. 한 번의 작업으로 수 만 페이지에 이르는 대량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세서, 서적, 학습지, 보고서, 매뉴얼, 신문 등을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출력하기에 적합하다.

4가지 잉크 드롭 사이즈를 통해 세밀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잉크젯 헤드와 넓은 색상 계조를 표현할 수 있는 후지필름 안료잉크를 채택했다. 더불어 데이터를 인쇄용 이미지로 변환하는 RIP 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컨트롤러를 탑재,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제품의 최대 생산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한국후지제록스 전략사업본부 PSB 마케팅팀의 이영훈 팀장은 “인쇄시장에서 디지털인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는 만큼 디지털인쇄에 관심이 많은 출판업계 관

계자들을 모시고, 출판사와 인쇄사가 상생을 이야기하는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한국후지제록스는 향후에도 분기마다 인쇄산업에 종사하는 고객들을 초청해 고객의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투데이북스 이기우 대표



한국후지제록스 전을PSB 마케팅팀 대리



한국후지제록스 이영훈PSB 마케팅 팀장